

# 〈대적퇴치〉 설화의 탐색담적 구조와 의미

이 채 연\*

## 목 차

- |                      |                    |
|----------------------|--------------------|
| I. 머리말               | IV. 대적퇴치설화의 의미와 전승 |
| II. 대적퇴치설화의 유형       | 1. 현재적 삶의 낭만적 치환   |
| III. 대적퇴치설화의 탐색담적 구조 | 2. 배반과 감추어진 일탈     |
| 1. 탐색담의 서사적 구조       | V. 마무리 및 남은 문제     |
| 2. 대적퇴치설화의 탐색담적 성격   |                    |

## I. 머리말

서사문학, 특히 설화는 현실적 경험세계의 일상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현실세계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소망과 기대를 이야기라는 극적구성 형태로 재구성한 것이 많다. 이때 비현실적인 세계, 즉 가공의 세계는 현실과 유리된 채 단순히 허황된 정신적 유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현실적인 고통을 무화시켜주고 꿈의 현실적 재현을 충족시켜 준다. 그러므로 서사문학에 나타나는 세계는 그것을 잉태하게 한 당대인들의 꿈의 표상이며, 그들의 현실적 경험질량이 낭만적으로 치환되어 있는 가장 전형적인 틀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서사문학이 지닌 가장 중요한 유형 중의 하나가 탐색, 즉 찾음의

---

\* 부산수산대학교 강사

이야기다. 찾아나선다는 것은 없음의 상태에서 있음의 상태로 나아가는 성취의 과정으로써 부재상태의 공백을 채워나가는 일련의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인간의 생활속에서 영속적으로 추구되어진 여러 의미있는 행위의 동기 부여 요인의 일환이자 궁극적으로는 삶의 존재를 확인케 해주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야기의 세계에 이러한 탐색의 이야기가 나타나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원형적 심성의 한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탐색담의 서사구조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끊임없는 동경과, 파괴된 안정 상태를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인간 심성의 보편성에 기초하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적퇴치〉 설화는 무엇인가를 성취하려는 인간의 심성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서사유형이다. 이는 가장 오래된 서사유형의 하나로 지금까지도 여전히 구술현장에서 전승되고 있다. 그 이유는 대적의 퇴치라는 흥미소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대적퇴치의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관심에 의해서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이 바로 탐색전승의 의미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대적퇴치〉 설화를 탐색담의 구조로 파악하고, 그 틀 속에 감추어진 의미에 천착하고자 한다.<sup>1)</sup>

## II. 〈대적퇴치〉 설화의 유형

〈대적퇴치〉 설화는 그 분포가 범세계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비슷한 유형으로 〈지하국대적퇴치〉 설화가 있다. 〈지하국대적퇴치〉 설화는 〈대적퇴치〉 유형의 이야기에 ‘지하계’ 탐방화소가 첨가된 것이다.<sup>2)</sup> 이들 이야기는

- 1) 대적퇴치담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김열규(지하계탐방 및 괴수제치 소재론, 『한국학보』 8집, 일지사, 1977 가을호), 김순진(지하국대적제치설화와 이조전기소설의 구조 대비분석, 『구비문학』 3, 정신문화연구원, 1980), 주명희(부녀담치형 대적퇴치 설화고, 『한국고전 산문연구』, 동화문화사, 1981)의 연구가 있다.
- 2) 〈대적퇴치 설화〉는 〈인신공회 설화〉 유형의 「처녀와 두꺼비」(『경남지방의 민담』, 김승찬, 제일문화사, 1986)와 같은 타입의 이야기를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의 관점이 탐색담의 구조에 국한하고 있는 관계로 주체가 사람인 경우에만 한정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대적퇴치가 중심이야기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으나, 플롯의 기본적인 흐름은 결여물<sup>3)</sup>을 찾아가는 탐색의 과정으로 되어 있다. 이는 이들 설화에서 서사진행의 동기부여가 여인의 피납으로 인해서 발생하며, 이 결여된 상태를 원래의 안정된 상태로 회복시키는 과정이 바로 탐색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때문에 본 설화의 유형에서 서사진행의 가장 큰 관심사는 누가 피납되었느냐, 누가 그 피납된 결실물을 본래의 상태대로 환원시켜 놓느냐에 모아진다.

편의상 〈대적퇴치〉 설화의 유형을 세가지 타입으로 나누어 살펴기로 한다.<sup>4)</sup>

유형-I 《상주오복동전설》

- 〈1〉 어떤 한량(무사)이 과거를 보기 위해 서울로 가다.
- 〈2〉 중도에서 어떤 부자가 대적에게 빼앗긴 딸을 찾아주면 재산의 반과 딸을 주겠다는 방을 보고 그녀를 찾아 나섬.
- 〈3〉 한량은 피납여인을 찾아 나서지만 대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름. 길을 가다 초립동 세 사람을 만나 의형제를 맺음.
- 〈4〉 다리 부러진 까치를 구해주자, 까치가 대적이 있는 곳을 가리켜 줌.
- 〈5〉 까치가 가리켜 준 바위를 들어내고 깔린 조개껍질을 치우니 조그마한 구멍 사이로 지하계가 보임.
- 〈6〉 한량이 줄을 타고 지하국으로 내려감.  
(초립동 세 사람은 구멍 밖에서 한량을 기다리기로 함.)
- 〈7〉 버드나무 위에서 동정을 살피다 피납녀를 발견함.

---

3) 여기서 〈결여물〉이란 의미는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을 잃어버린 결실의 경우와,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필요한 경우에 없는 결여의 경우를 아울러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탐색담은 “있음의 상태에서 없음의 상태”인 것과 “없음의 상태에서 있음의 상태”를 향해 찾아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위 양자를 보다 포괄한다는 의미에서 〈결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4) 〈대적퇴치〉 유형의 이야기는 설화에서 나타나는 가장 흔한 유형의 하나이다. 『구비문학대계』의 경우 약 30여편의 대적퇴치담이 발견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지면상 민담집에 채록된 개별 작품들을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기로 한다. 편의상 이들 유형의 설화에서 발견되는 세 가지 타입의 유형을 대표적인 각편의 하나로 보고 이들을 분석 텍스트로 하기로 한다. 여기에 예로 든 작품들의 출전은 다음과 같다. 〈상주오복동전설, 손진태, 『한국민족설화의 연구』〉, 〈신랑과 괴물,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구두적, 손진태, 『조선민담집』〉

4 韓國文學論叢 第11輯

- <8> 여인이 한량에게 동삼수를 매일 떠다주며 힘을 기르게 한 뒤 대적의 칼을 훔쳐 대적의 목을 베게함.
- <9> 한량이 대적의 목을 베고, 여인이 재를 뿌려 목이 다시 붙지 못하게 하니 대적이 죽게됨.
- <10> 한량이 지하국의 금은 보화와 여인을 데리고 와 결혼함.  
(세 명의 초립동들도 지하국에 갇혀 있던 다른 여인들과 결혼.)

유형-II-1 《신랑과 괴물》

- <1> 옛날 한 남자가 예쁜 여자와 결혼해서 살고 있었다.
- <2> 밤에 잠을 자는데 도둑이 아내를 납치해 감.
- <3> 남자가 뒤를 추적하자, 도둑이 ‘나 사는데는 까마귀, 까치 사는데고 내 집은 코 짙 풀어 내던진 곳이다’하고 사라짐.
- <4> 그 말의 뜻을 모르던 남자가 원님놀이를 하던 아이들에게 물어 그 곳이 오학동이란 골짜기인 것을 알게됨.
- <5> 남편이 높은 산 위에 있는 오학동을 찾아감.
- <6> 우물가 버느나무 위에서 낫선 여인을 발견.
- <7> 여인이 도둑에게 고자질.
- <8> 대적이 남편을 광에 가두고 도둑질하러 간 사이 아내가 남편에게 장수 되는 물을 두달동안 먹게 하여 힘을 키우게 함.
- <9> 도둑이 광문을 열자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이 칼로 목을 뺨.
- <10> 도둑이 훔쳐 놓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귀가함.

유형-II-2 《구두적》

- <1> 어떤 마을에 한 부부가 살고 있었음.
- <2> 어느 날 아내가 하녀와 함께 머리 아홉 달린 괴물에게 납치됨.
- <3> 남편이 아내를 찾아 길을 나서지만 괴물이 있는 곳을 알지 못함.
- <4> 아내를 찾아 헤메다가 우연히 한 초가에 있는 노파를 만남.
- <5> 노파의 도움으로 괴물의 거처를 알게 되고, 노파가 동삼과 칼을 주면서 힘을 키우게 함.
- <6> 노파가 일러 준 곳으로 가, 큰 바위를 치우니 조그마한 굴이 나타남.

- 〈7〉 아홉 개의 대문이 있는 괴물의 집에 도착하여 동정을 살피던 중 하녀를 만나게 됨.
- 〈8〉 하녀가 남편을 아내에게 데려다 주자, 아내는 남편을 반가히 맞이하기를 커녕 그를 광에 가두어 버림.
- 〈9〉 하녀의 도움으로 남편이 구두적과 싸워 이기고, 변심한 아내를 죽임.
- 〈10〉 괴물이 훔쳐 놓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자기를 도와준 하녀와 결혼함.

위의 세 편의 설화는 대적퇴치 설화의 각편이 하나의 하위유형으로 고정된 형태이다. 서사단락 중 〈1〉은 이야기의 주인공이자, 이야기의 진행을 이끌고 있는 서술주체이다. 이들은 신하, 한량, 장사, 남편 등 다양한 인물들로 탐색과정의 주체적 인물이다. 그런데 이들 중 누가 탐색주체로 등장하던 간에 그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이는 신분이나 개인별 능력의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서사구조 상에서 차지하는 기능은 결국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는 피납에 의해 결여된 대상이다. 이들은 공주, 부자의 딸, 아내, 미인 등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신분이나 처지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평범한 존재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즉 괴물 퇴치라는 위험스런 모험을 감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납된 사실을 그대로 방기할 수 없도록 할만큼 뛰어난 재색을 겸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곧 탐색주체로 하여금 탐색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동기부여가 된다. 〈3〉은 탐색주체가 탐색의 길로 오르게 되는 여행의 출발점이다. 〈4〉는 원조자이다. 이들은 동물, 초인 등으로 나타나는데, 탐색주체가 대적을 찾게 하는 단서를 제공한다. 〈5〉는 현실계와 지하계를 연결시켜 주는 관문이다. 이 관문은 쉽게 찾을 수 없는 은밀한 곳에 있는 것이 보통인데 주로 조개껍질이나 덩굴, 석문 등으로 감추어져 있다. 이 관문은 두 세계를 분리하는 경계선임과 동시에 이들 세계가 서로 만나고, 현실 세계로부터 분리된 다른 세계에로의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과제의적 성격을 띤 관문이라 할 수 있다. 〈7〉은 탐색의 대상이라 할 수 있는 피납여인이다. 이들은 탐색주체를 도와 괴물을 제거할 수 있는 계락을 알려주기도 하고, 도리어 괴물의 편을 들어 탐색자를 죽이려고 하기도 한다. 〈8〉, 〈9〉는 탐색주체가 물리쳐야 할 장애 대상이다. 이들은 머리 아홉달린 괴물이나 비늘달린 동물, 금돼지 등 괴물의 형태를 한

것과 힘센 도둑과 같은 사람의 형상을 한 것이 있다. <10>은 탐색의 최종 성취여부이다. 이에는 두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도움을 준 피납인과 결혼하는 경우이고<유형- I, 유형- II-1> 피납당한 아내가 목숨을 걸고 온 남편을 배반하여 오히려 대적의 편을 드는 경우이다. <유형- II-2>

### III. <대적퇴치> 설화의 탐색담적 구조

#### 1. 탐색담의 서사적 구조

서사문학에서의 탐색이란 탐색 주체가 결여된 사물을 찾기 위해 장애요인을 제거해 가면서 여행해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야기 속에서의 탐색이란 잃어버린 단추를 찾는 것과 같은 평범하고도 일상적인 행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인간이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 어떤 것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 전형적인 탐색담은 <탐색목적물>, <영웅>, <여행>, <시련>, <장애자>, <원조자>의 6섯 가지의 필수적인 요소를 가진다.<sup>5)</sup>

일반적으로 설화에서 <탐색목적물>은 대상에 따라 사람, 사물의 경우로 나누어진다. 사람의 경우는 가족탐색의 형태<sup>6)</sup>로 나타나며, 사물의 경우는 신비

5) W.H. Auden, "The Quest Hero", Perspective in Contemporary Criticism, (김병욱의, 『문학과 신화』, 대방출판사, 1983, p. 182)

탐색담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김열규(찾음의 얘기들 I, II, 『한국문학사』, 탐구당, 1983)와 송효섭(문학적 탐색담의 구조, 서강어문 2집, 1982), 광진석(탐색담의 유형과 구조적 해석, 서강어문 3집, 1983), 조희웅(『설화학강요』, 새문사, 1989)의 연구가 있다. 김열규의 연구는 한국의 서사문학에서 탐색모티프의 추출가능성과 그 의미추적에 천착했고, 송효섭과 광진석은 그레마스의 설화 분석방법을 우리 설화에 적용시켜 기호론적으로 풀이하였다. 조희웅은 우리 설화에 나타나는 탐색모티프를 통손의 「민간문학의 모티프 색인」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화시켜 산만했던 탐색담에 대한 논의를 보다 견고히 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선행연구에 도움 받으면서 <대적퇴치> 설화를 대상으로 하여 그 구조와 의미 천착에 좀 더 심도를 더하고자 한다.

6) 가족탐색담의 경우는 가족 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결여된 가족을 찾아 나서는 경우이다. 이 유형의 탐색담은 아버지 찾기(유리태자), 남편찾기(구렁덩덩신선비), 아내찾기(괴물퇴치담), 딸찾기(괴물퇴치담)로 하위 분류할 수 있다.

로운 약풀이나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것<sup>7)</sup>으로 나타난다.

〈영웅〉은 탐색주체를 의미한다. 탐색주체는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서사시의 영웅을 닮은 것으로 그의 탁월한 능력이 어떤 상황에서도 증명되는 경우다. 또 하나는 타고난 능력은 있으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타고난 능력은 보잘 것 없으나 그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는 경우다. 이는 가장 어리고, 가장 빈약하고, 가장 영리하지 못한 아들과 같은 존재로 다른 사람의 실패에 의해 영웅으로 인정이 되거나 원조자의 도움에 의해 탐색에 성공한다.<sup>8)</sup>

여기서 전자의 경우는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이며, 후자는 전설이나 민담에 등장하는 인물일 경우가 대부분이다.<sup>9)</sup> 신화의 주인공은 선천적으로 신적인 능력을 잠재받고 태어났기에 그가 겪게되는 시련의 과정은 오히려 그의 영웅성을 부각시키는데 기여한다. 즉, 신화적 탐색주체에 있어서 탐색의 과정은 그 성공을 전제한 입사의식이라 할 수 있다. 전설의 경우 탐색주체는 예기치 못한 돌발 사태를 맞이해 좌절하는 경우가 많으며, 민담의 탐색주체는 그의 평범성에도 불구하고 원조자의 도움에 의해 시련의 과정을 쉽게 극복한다. 그의 이러한 성공은 그의 능력보다는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 및 그가 지닌 품성의 선량함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짙다. 즉 민담의 주인공은 일상적인 인물이나 운명을 개척하는데 근본적으로 낙관적이라 할 수 있다.<sup>10)</sup>

〈여행〉은 탐색의 과정이다. 서사문학에서의 탐색과정은 주로 공간과 관련된다. 여기서의 공간은 지상은 물론이고 이제와 관련된 것이 많다. 이제는 저승, 지하, 천상, 낙원, 용궁 등 인간의 일상적인 경험세계와는 다른 공간이

7) 약물찾기의 경우는 〈바리공주〉나 〈토끼의 간〉 등의 이야기가 있다. 특히 〈토끼의 간〉 이야기는 탐색과정에서 우연성이 거세된 형태로 탐색자들의 개인적 기지에 의한 수수께끼 구조로 되어 있다. 수수께끼 구조에 대해선 이현홍(수궁가의 구조 연구 II, 『국어국문학』 20집, 부산대 국문학과, 1983)을 참조, 그리고 신비한 물건 찾기는 〈잃어버린 옥쇄찾기〉, 〈개와 고양이와 보물찾기〉 등의 이야기가 이에 해당한다.

8) Auden, 앞의 책, 184쪽

9) 신화에서의 탐색은 우주적 규모에 걸친 인류와 인간공동체 전체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라면 전설의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의 것이고 민담의 그것은 가족적 내지 개인적 차원의 탐색이란 차이가 있다. (김열규, 『한국문학사』, p. 4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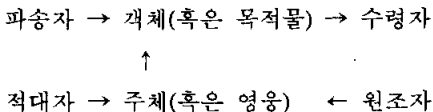
10) 장덕순 외,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1971, p. 45.

다.<sup>11)</sup> 이처럼 탐색담에서 지상이 아닌 이계가 등장하는 것은 탐색과정에 신비성을 부가함으로써 결여물의 획득과정이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이 아님을 암시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초월적인 세계를 향한 인간의 이상심리를 충족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련〉과 〈장애자〉는 〈여행〉과정에서 겪게 되는 〈탐색주체〉의 능력을 시험하는 과정과 방해대상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탐색주체가 아직껏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상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탐색주체는 새로운 세계나 불가사의한 동물 등의 존재에 대해 극복할 방법을 전혀 학습하지 못했다. 애초부터 이러한 제약 요소들은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습득된 지식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탐색주체가 장애자가 막고 있는 시련의 과정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신성성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원조자〉는 탐색주체가 직면한 능력의 시험 과정에서 그를 도와주는 조력자다. 그 유형으로는 초월자, 동물, 피남인이 나타난다. 탐색담에서의 원조자는 탐색주체가 탐색해 가야 할 과정에서 단서를 제공하거나, 장애자의 제거에 결정적인 방술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 민담의 경우 특히 〈원조자〉의 역할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오히려 탐색주체의 능력이 약화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탐색담의 구조는 〈결여-탐색-성취〉로 나타낼 수가 있다.

이를 인물의 기능에 따른 Greimas의 행위항의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sup>12)</sup>



11) 이제로의 탐색은 탐색주체의 탐색과정에 신비성 및 신성성을 부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저승으로의 여행은 〈바리공주〉, 〈강림도령〉에서, 지하는 〈지하국대적퇴치담〉에서, 천상은 〈선녀와 나무꾼〉에서, 용궁은 〈우렁쌈시〉에서 나타나는 공간들이다. 이의 분류에 대해선 조희웅의 앞의 책 참고.

12) A.J. Greimas, *Semiotique et science sociales*, Paris : Seuil, 1976. (서인석, 『성서와 언어과학』, 1984, 성바오로출판사), pp. 175~176.

여기서 파송자와 수령자는 의사소통의 축이며, 주체와 객체와의 관계는 욕망의 축이고, 주체를 둘러싼 적대자와 원조자의 관계는 행위의 축을 형성하고 있다.<sup>13)</sup> 파송자는 설화에 발동을 거는 행역자다. 그는 탐색의 객체를 규명하고 그 객체를 찾아올 수 있는 행역자, 곧 주체를 모색하는 위치에 있다. 객체란 잃어버린 것, 곧 찾아와야 할 대상이다. 주체는 파송자의 호소에 응답하고 그와 협약을 함으로써 결여물을 찾아오겠다고 약속하는 인물이다. 적대자는 탐색주체의 행위에 방해놓는 자이다. 보조자는 탐색을 쉽게 하도록 도와주는 자이다.

이 모델에 의하면 파송자와 수령자는 인위적으로나마 구별되어야 하며 또한 이 양자는 그들 사이의 매개행위가 개입되어야만 합일이 가능하다. 이 매개행위가 거는 내기는 객체로 상징화되고 있으며 또한 매개행위 그 자체는 이미 매개자 곧 주체의 업적이 되는 것이다. 영웅은 자격시련을 통과함으로써 실제로 '요청된 객체'를 얻게 되고 또한 이 객체는 영웅의 소임의 실현을 도와준다. 본격시험이 성공으로 끝난 후에 일단 수령자에게 객체가 전달된다.<sup>14)</sup>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바로 탐색주체가 여행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 2. 〈대적퇴치〉 설화의 탐색담적 성격

탐색담이란 누군가에게 초래된 손상이나 과실(납치, 유괴) 또는 무엇인가를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에 의해 시작되어 주인공의 집떠남, 그에게 감추어진 물건을 찾게 해 주는 마술적 수단이나 마술적 조력자를 주는 중여자의 만남 등으로 전개되며, 뒤이어 적수와의 결투, 귀환, 추적 등으로 나타난다.<sup>15)</sup>

13) Cesare Segre, *Analysis of the Tale, Narrative Logic, and Time*. "Structure and Time" (Narration, Poetry, Models, Chicago, 1979) [최상규 역, 『현대소설의 이론』, 대방출판사, 1983, pp. 106~107] 참조.

14) 서인석, 앞의 책, pp. 178~179.

15) V.Y. Propp. *Les racines historiques du conte merveilleux*, trad. Lise Gruel-Apert, 1983, Paris, Gallimard(최애리 역, 『민담의 역사적 기원』, 문학과 지성사, 1990), p. 40.

이는 찾음의 이야기 상호간에 친족성을 갖게 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면서 인간심성의 보편성을 암시하기도 한다. 대적퇴치 설화는 찾음의 이야기로서의 보편성을 가지면서 대적퇴치 설화만의 필요 기능소를 갖고 있다. <대적퇴치> 설화의 유형을 기능 중심의 최소 서사단락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1. 탐색 주체의 등장
2. 여자가 대적에게 피납
3. 탐색주체가 피납자를 찾기 위해 길 떠남
4. 원조자를 만남.
5. 대적의 거처에 도달
6. 피납자의 발견
7. 대적을 발견
8. 피납자나 주변인물의 도움으로 대적퇴치의 방책을 얻음
9. 대적퇴치
10. 탐색주체가 피납 여인 또는 시녀 등과 결혼

위 <대적퇴치> 설화는 그 서사진행 과정이 탐색주체가 결여된 목적물을 찾아 여행하는 도중 원조자를 만나 대적을 퇴치하고 결여체거를 한다는 흐름으로 되어 있다. 이는 탐색담의 서사구조라 할 수 있는 <결여-탐색-성취>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위 설화의 10가지 기능소들은 <대적퇴치> 설화에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다. 탐색주체의 신분이나 조력자의 유무, 원조자가 인간이나, 동물이나의 개별적 차이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다 이 기능소<sup>16)</sup>들을 갖고 있다. 이

16) 프롭은 러시아 민담 속에서 변화하지 않는 요소와 변화하는 요소의 구분을 시도 하면서 민담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변동하더라도 그들의 기능은 일정하고 한정 되어 있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그리고 그는 여러 민담들을 분석한 후 기능들의 총 수는 31개를 결코 초과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여기서의 기능이란 인물의 행위이며, 행위의 진행에 있어 그것의 중요성이라는 관점에서 정의되는 것이다. 즉 인물들의 기능들은 민담의 불변하는 일정한 요소이며, 그것들이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 의해 진행되는가 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V.Y. Propp, *Morphology of the Folktale*, tr. by L. Scott, Indiana Uni., 1968, pp. 21~23) 따라서 탐색주체의 신분이나 개인적인 능력은 크게 중요하지가 않은 것이다. 탐색담에 있어서 탐색주체의 기능은 여인의 피납으로 인한 결핍의 상태를 원래의 질서 상태로 환원시켜 놓는데 있다.

러한 점은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민담들의 한 특징이기도 한데, 위의 것들은 〈대적퇴치〉형 탐색담만의 기능소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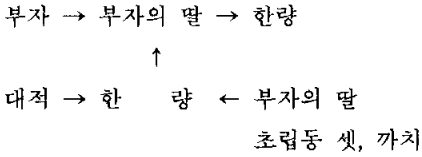
그런데 〈대적퇴치〉 설화에서는 위 10가지 기능소를 가지면서도 탐색주체와 탐색대상의 관계에 따라 두가지 경우로 나뉠 수가 있다. 첫째는 탐색주체가 피납여인과 전혀 면식이 없는 경우이다〈유형-I〉. 이때 탐색주체가 탐색의 길로 나서는 이유는 사건해결을 원하는 파송자(피납자의 아버지)의 보상적 조건에 의해서이다.<sup>17)</sup> 탐색주체가 제거해야 할 적에 대해서 사전 지식이 전무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탐색을 시작하는 것은 최종에 가서 위임자로 부터 약속받은 선물, 즉 여인과의 결혼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피납된 여인이 탐색주체의 아내인 경우다〈유형-II〉. 이 경우의 탐색은 탐색주체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이루어진다. 사건해결의 파송자가 자기 자신이 되기 때문에 전자의 경우처럼 보상을 염두에 두고 찾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다. 아내를 뺏겼다는 억울함, 즉 가장 소중한 것의 결실에서 오는 상실감을 해소하기 위해 모험의 길로 나서는 것이다.

〈유형-I〉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피납자는 탐색주체에게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인 방술을 제공하는 원조자로 기능한다. 〈유형-II〉에 있어서는 남편이 대적을 물리칠 수 있게 조력하는 경우와〈유형-II-1〉, 반대로 남편을 배반하고 오히려 대적을 편드는 경우가 있다〈유형-II-2〉. 후자의 일반적인 탐색담의 서사구조와는 그 형태를 약간 달리한다. 남편이 피납된 누군가(하녀)와 결혼을 한다는 점에서는 탐색담의 구조를 지니고 있지만, 탐색출발시 구출대상으로 삼았던 본래의 대상이 바뀌어 버린 것이다. 즉, 그레마스 모형에 의할 때 객체가 바뀌어 버린 경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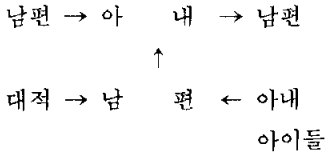
이를 그레마스의 모델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7) 탐색주체가 탐색의 길로 나아가는데 있어 위탁자에 의해서 그 임무를 부여받는 경우는 그 피납 대상이 고귀한 신분의 존재(공주, 귀족의 딸)인 경우이나, 탐색주체가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결실물을 찾아 나서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재색을 겸비한 잃어버린 자신의 아내를 찾아 나서는 경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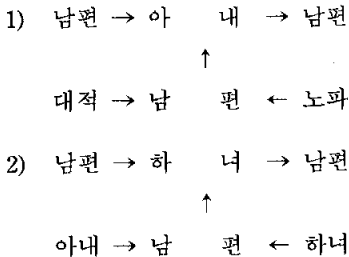
〈유형-I〉



〈유형-II-1〉



〈유형-II-2〉



위의 도표를 놓고 볼 때 〈유형-I〉와 〈유형-II-1〉의 탐색은 객체 즉, 대상을 향한 탐색주체의 욕망의 축을 놓고 볼 때 객체는 주체의 조력자로 기능한다. 그 결과 주체는 객체를 소유하는 수령자의 위치에 놓여 있다. 그러나 〈유형-II-2〉 모델은 그레마스 이론으로 볼 때 적대자와 원조자의 위치가 전도된 형태이다. 원래 탐색주체가 추구했던 탐색의 방향은 1)의 경우다. 그런데 탐색대상인 아내의 배반에 의해 탐색주체가 애초에 의도했던 탐색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2)처럼 다른 대상을 성취하는 것으로 탐색이 종결된다. 이처럼 원래 의도했던 탐색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 표면상 탐색담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탐색담이 아닌 것은 아니다. 이는 탐색주체의

욕망의 축이 애초의 모습에서 굴절되어 버린 경우다.<sup>18)</sup> 따라서 이 경우는 앞의 두 경우와는 변별되는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의 의미는 다음 장에서 살피기로 한다.

## IV. 〈대적퇴치〉 설화의 의미와 전승

### 1. 현재적 삶의 낭만적 치환

일반적으로 탐색담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기도 하고, 신이 정해준 연인만이 용해시킬 수 있는 요술에 걸린 잔인한 왕비의 마음을 다룬 주제와 같이 종교적 관례의 회상을 곡해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문학형태로서의 탐색의 영속적 호소력은 역사적 사실의 주관적 경험의 상징적인 타당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sup>19)</sup> 이러한 탐색전승을 가능케 하는 원인은 있는 그대로의 삶에 충실하면서도 “있었으면 좋을 세계”나 “있어야 할 세계”에 대한 추구의 의식이 강렬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있었으면 좋을 세계”란 성취 되었으면 좋을 세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미래지향의 의지가 담긴 것이고, “있어야 할 세계”는 현상유지 상태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현재적 당위의 세계를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서 추구하는 세계란 ‘평범하지 않는 대상에로의 추구’라는 이야기로서의 극적 흥미요인을 그 기저에 갖고 있다. 〈대적퇴치〉 설화가 ‘아름다운 여인의 구출과 결혼에의 추구’라는 다소 통속적인 면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이는 삶이라는 현재성 속에서 가장 낭만적으로 꿈꿀 수 있는 민중적인 심성의 한 원형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하여 탐색담은 가장 오래되고 가장 민중적인 서사구조를 가진 채 오늘까지 전승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18) 따라서 이 경우는 그레마스모형으로는 명칭하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와같은 각편이 대적퇴치담에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만, 어쨌든 이 시점에서 이러한 유형이 갖는 의미에 좀 더 깊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는 있을 듯 하다.

19) H.W. Auden, 앞의 책, p. 180.

〈대적퇴치〉 설화에서 추구되는 바, 즉 탐색의 길로 유도하는 것은 위에서 말한 “있었으면 좋을 세계”와 “있어야 할 세계”에 대한 소망적 기대 심리가 허구적인 장치의 틀로 전이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있었으면 좋을 세계”에 대한 추구심리가 반영된 형태가 앞서의 〈유형-I〉이다. “있어야 할 세계”에 대한 추구심리가 반영된 것은 〈유형-II〉이다.

〈유형-I〉의 탐색담이란 현실에서 이루어지기 힘든 세계가 꿈을 통해서라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낭만적으로 치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상주오복동전설〉류에서 살펴 본 것처럼 탐색주체는 지극히 평범한 인물로 탐색과정에서 한변쯤은 보여줘야 할 영웅성이 거의 거세되어 있다.<sup>20)</sup> 그럼에도 그는 결과적으로 애초에 목적했던 소유하고자 한 바를 아주 손쉽게 획득한다. 탐색주체의 입장에서 볼 때 “있었으면 좋을 세계”를 획득하게 되는 것은 예기치 않던 피납사건의 발생과, 결과적인 우연한 행운에 의해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탐색주체에 있어서 의미있는 가치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막강한 힘을 가진 대적을 물리치기 위해 모험의 길로 주저하지 않고 나섰다는 동기적인 용기이다.<sup>21)</sup> 즉 그는 과감한 용기 하나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부와 아름다운 여인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있었으면 좋을 세계”를 추구하는 삶의 방식과도 통한다. 자기 자신의 처지나 신분의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부자집 딸(공주, 정승 딸)과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은 실제 생활과는 유리된 역설적 의미이자, 꿈의 현실적 재현을 기대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누구나, 우연히 그것도 자신의 능력 유무와 전혀 관계도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있었으면 좋을 세계”가 누구에게나

20) 여기서 영웅성이란 것은 일반적으로 설화나 소설에서 등장하는 영웅을 일컫는 말이다. 영웅을 귀족적 영웅과 민중적 영웅으로 나눌 때 설화에 나타나는 영웅은 후자인 경우가 많다. 민중적 영웅도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비천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범인과는 다른 비범한 능력을 타고 나 그것을 현실계에 구현을 해야 한다. (조동일, 영웅이야기의 분류방법 모색, 『한국설화와 민중의식』, 정음사, 1985, 참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대적퇴치〉 설화에 등장하는 탐색주체는 영웅의 범주에 들어가기에는 그 자격상 문제가 있는 것 같다.

21) 파견자나 탐색자가 뭔가 결여되어 있다고 갑자기 깨닫는 순간 동기가 오게 되는데, 이 동기는 파견이나 즉각적인 탐색을 야기시키는 동기지움에 의존하고 있다. (V.Y. Propp, Morphology of Folktale, 유영대 역, 새문사, 1987, pp. 78~81) 참조.

개방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남보다 특별한 능력을 가질 필요도 없으며 능력을 배양했다 하더라도 애초부터 그의 힘만으로는 대적이 퇴치되지 않게 되어 있다. 단지 그는 용기 하나만으로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보다는 동기지향적인 서사의 틀은 바로 민중적인 꿈을 충족시켜 주는 장치이며, 이야기를 통해 현실의 상상적 해결을 도모하려는 낭만적인 보상행위의 부산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2. 배반과 감추어진 일탈

〈대적퇴치〉 설화에서 주인공을 둘러싼 인물 간에 배반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하나는 앞의 〈유형-I〉에서 처럼 탐색주체의 조력자로 등장한 탐색과정 동행자들이 탐색결과의 분배과정에서 그 전리품을 독차지 하기 위해 배반하는 경우이며, 또 하나는 〈유형-II〉에서 처럼 탐색대상인 피납여인이 구출되기를 거부하고 탐색주체를 죽이려고 하는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 전체적인 서사극면에서 조력자가 차지하는 서사적 비중이나 탐색담의 전체적인 구조를 고려할 때 조력자의 배반이란 탐색주체가 제거해야 할 또 하나의 장애자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때문에 탐색담의 서사구조인 〈결여-탐색-성취〉의 일반적인 결구를 파괴하는 데는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한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전자와는 의미가 다르다. 탐색담에 있어서의 〈성취〉는 단순히 새로운 것을 획득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애초에 결여된 상태의 공백을 메우는 〈결여제거〉의 의미가 있다. 따라서 탐색담에서의 〈성취〉는 탐색동기를 부여하게 된 대상으로서의 목적물을 획득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피납여인의 배반은 탐색의 의미를 전도시키는 근원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피납여인이 배반하는 경우는 〈유형-II-2〉로 거의 대부분이 탐색주체의 아내인 경우이다. 남편이 죽을 위협을 무릅쓰고 찾아왔는 데도 불구하고 그를 배반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왜 이런 각편이 하나의 유형으로 고정되어 전승되어져 오는 것일까. 이런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편 대신에 취하게 된 대적의 의미부터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적퇴치〉 설화에 나타나는 대적의 형태는 머리 아홉달린 괴물, 금돼지,

비늘달린 괴물, 도적의 두목, 힘센 장사 등 다양하다. 이들은 괴물의 형상을 하고 있든,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든 상식을 뛰어넘는 괴력의 소유자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힘은 동삼이나 동삼수 등 신비로운 약물에 의해서 유지된다. 그런데 괴물로 등장하는 경우에도 이들의 생활 양식이 지극히 인간적인 범주의 것으로 표현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적이 살고 있는 곳이 비록 지하계이지만, 그 속에서의 생활은 일반적인 지상계의 생활과 별반 차이가 없다. 큰 기와집에 우물이 있는 것도 그렇고 괴물이 금은 보화를 훔쳐와 저장해 두는 것도 지극히 인간적인 물욕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대적은 그 형상의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지극히 인간적인 삶의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존재라 할 수 있다. 이는 괴물이 생물학적인 의미 그대로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써 형상화된 인간의 또 다른 단면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본 설화에서의 대적이란 평범한 인간과는 구별되는 괴력을 소유하고 있는 탐욕스런 인간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대적의 형상이 괴물로 묘사되고 있는 것도, 대적의 괴력을 극대화시켜주는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대적이 괴력의 소유자로 상징화되어 있는 것은 탐색주체의 영웅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장치로도 볼 수 있으나, 반대로 탐색주체가 갖고 있지 못한 능력을 갖고 있는 자라고도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가 <유형-I>, <유형-II-1>에 속한 것이라면, 후자의 경우는 <유형-II-2>에 해당한다.

그러면 탐색주체가 갖고 있지 못한 능력을 대적이 갖고 있는 경우, 탐색자의 아내를 배반시킬만 하게 뚜렷이 갖고 있는 능력이란 무엇일까. 대적의 형상적 상징성은 강력한 힘의 소유자라는데 모아진다. 여기서의 힘은 단순히 근육질의 운동에너지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원천적 이드상태인 성에너지의 발현이라 볼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서사의 결말 부분에서 피납된 아내가 남편을 거부하고 대적을 선택하는 것은 남편으로부터 충족되지 못한 성의 결핍을 대적을 통해 대리 충족하려는 의미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대적은 남편이 갖고 있지 못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다.

22) 그 부의 축적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여기서는 별 의미가 없다. 단지 피남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대적이 갖고 있는 능력은 모든 면에서 자신의 남편보다는 우월한 것이며, 설사 남편과 원래의 생활로 돌아간다 해도 대적과 함께 한 시간상의 공백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sup>23)</sup>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하국 대적퇴치 설화류에서 보이는 ‘지하’의 의미는 통과제의적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다. 즉, 대적이 존재하는 세계와 남편이 사는 세계를 분리하는 경계선으로, 이들 양 세계가 서로 만나고 현실 세계로부터 분리된 다른 세계로 이행이 이루어지는 판문이다. 이 판문은 피남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 현실규범과 윤리의식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 결과 지향하고자 한 것은 전통적 유교적인 삶의 방식의 지속이 아니라, 성의 해방과 부의 충족 등 세속적 욕망의 충족을 통한 규범적 삶으로부터의 일탈이라고 볼 수 있다.

대적퇴치 설화는 서술진행 과정이 가장 남성지향적인 서사구조로 되어 있다. 결여물의 획득을 위한 탐색과 결과적 보상은 남성위주의 꿈과 편의주의적인 사고가 용해되어 있다. 이처럼 가장 남성지향적인 이야기 틀속에서 남성의 영웅성을 파괴시켜 버리는 행위는, 가부장적인 남성위주의 윤리세계의 관습적 당위성을 거부하려는 잠재의식의 발현이다. 따라서 〈유형-Ⅱ-2〉의 대적퇴치담은 남성의 꿈을 충족시켜 주는 가장 남성중심의 서사구조를 이용하여, 여성의 잠재된 소외감을 대리 표출시키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2) 여인을 피남하는 대적으로 금(왜지)가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데, 이는 왜지가 상징하는 부와 풍요의 의미와 어떤 함수관계를 갖고 있을 것이다.

23) 남편과 함께 귀환한다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남편으로부터 의심받게 될 정조에 대한 추궁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러한 예로 ‘최고운’ 설화를 들 수 있다. 또한 피남 여인이 정조를 지키기 위해 대적을 무마시키는 이야기나, 칼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어 대적으로부터 정조를 유지하려는 행위가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이런 각편들을 고려한다면 〈남치사건과 성의 윤리성〉 문제가 설화 속에서 결코 소홀히 취급되어서는 안될 문제인 것 같다. 주명희는 앞의 논문에서 “순결이나 정절의 윤리는 부녀남치 설화에서 예상외로 관심의 대상이 못됨”이라 하고 있는데, 본고는 이와는 견해를 달리한다.

## V. 마무리 및 남은 문제

서사문학이 갖고 있는 이야기로서의 흥미와 효용성을 충족시켜 주는 유형의 하나가 탐색담이라 할 수 있다. 탐색은 인간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미래지향적인 의지 표출의 한 방식이자, 삶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는 가장 진취적인 인간 행위의 하나이다. 앞서 탐색담은 〈결여-탐색-성취〉의 구조로 되어 있음을 살펴 보았다. 〈대적퇴치〉 설화의 서사적 구조도 이와 같은 구조라 할 수 있다.

본고는 대적퇴치 설화가 탐색담의 전형적인 유형이라는 점을 고찰한 후 대적퇴치 설화에 나타나는 세 가지 유형의 각편에 주목하였다.

〈유형-I〉의 경우는 탐색주체가 전혀 면식이 없는 피납여인을 찾아 나서는 경우로, 파송자인 피납녀의 아버지가 보상적인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탐색이 시작된다. 〈유형-II〉는 피납된 여인이 탐색주체의 아내인 경우로, 파송자인 남편이 아내의 피납에 따른 상실감을 해소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서는 경우다. 이 타입은 아내의 협조 유무에 따라 다시 두 형태로 나뉘어진다. 이 세 각편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대적퇴치 설화의 탐색은 있는 그대로의 삶에 충실하면서도 “있었으면 좋을 세계”와 “있어야 할 세계”에 대한 소망적 기대심리가 낭만적으로 치환된 형태라 할 수 있다. “있었으면 좋을 세계”를 지향하는 내용의 타입은 〈유형-I〉인데, 이것의 의미는 1) 그 내용이 통속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삶이라는 현재성 속에서 가장 낭만적으로 꿈꿀 수 있는 민중적 심성의 한 원형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2) 탐색주체의 신분의 미천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동일한 결과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은 “있었으면 좋을 세계”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런 이유로 강한 전승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보았다.

둘째, “있어야 할 세계”에 대한 지향은 〈유형-II〉 타입이다. 그런데 〈유형-II-1〉은 납치당한 부인을 도로 되찾음으로써 파괴된 안정상태를 원래의

안정상태로 회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탐색담이라 할 수 있다.

세째, 〈유형-Ⅱ-2〉는 〈유형-Ⅱ-1〉의 타입에 배반의 흥미소가 첨가된 것이다. 탐색담에 있어서 〈성취〉는 단순히 새로운 것을 획득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결여제거〉의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 각편은 〈결여-탐색-성취〉의 탐색구조의 의미를 전도시키는 근원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유형-Ⅱ-2〉의 의미는 1) 대적퇴치 설화에 나타나는 대적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의미가 아니라 인간 행위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존재로, 탐색주체의 아내로 하여금 배반할 수 있게 하는 괴력의 소유자다. 2) 대적은 남편이 갖고 있지 못한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로 피남 아내로 하여금 남편으로부터 충족되지 못한 성의 소외와 생활의 빈곤을 대리 충족시켜 주는 기능을 한다. 3) 이때 대적이 살고 있는 지하는 피남여인이 현실적 규범과 윤리의식의 파괴를 가져오는 통과제의적인 상징적인 관문으로 규범적 삶으로 부터의 일탈을 의미한다. 4) 대적퇴치 설화는 가장 남성지향적 서사구조를 갖고 있어 남성 위주의 꿈과 편의주의적인 사고가 용해되어 있는데, 배반 흥미소의 첨가는 남성위주의 윤리세계의 관습적 당위성을 파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는 가장 남성지향적인 서사구조를 이용하여 여성의 잠재된 소외감을 대표출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탐색담의 〈결여-탐색-성취〉 구조는 비단 설화문학에만 국한되지 않고 소설에도 전승된다. 탐색담의 서사구조가 전승되고 있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김원전, 김령전, 홍길동전을 들 수 있다. 이들 작품에 나타나는 탐색구조는 작품의 부분적인 모티프로 첨가되거나, 작품 전체에 전승되기도 한다. 그런데 소설 속에 나타나는 탐색구조는 탐색주체의 능력과 대적의 활동양상에 따라 설화보다는 그 깊이가 보다 심화되어 있다. 즉, 설화에 비해 탐색주체의 능력이 보다 영웅화 되고 대적의 활동이 구체화됨으로써 서사진행의 갈등의 축이 선/악의 뚜렷한 대결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앞서 살핀 탐색담의 유형 중 설화에서 소설로 이행되어 간 것은 〈유형-Ⅰ〉이다. 이는 조선조 소설의 일반적인 결과라 할 수 있는 권선징악적 구조와 밀접한 함수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형-Ⅱ-2〉의 서사진행은 소설에로의 이행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점은 조선조 소설이 지향했던

행복한 결말지향의 보편적 질서에서 위반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의사전 달의 과정이 말에서 문자라는 상징적인 매체로 대체됨으로써 사회 윤리적인 면이 보다 강화되고, 유교적 규범에 위배되는 것은 여과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유형-II-2>는 여전히 말의 소통구조, 즉 설화로 전승되어 온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자료를 분석하고 난 뒤 결론내려야 할 과제로 남긴다.